|  |
| --- |
| **보도자료 –차바이오텍**  **홍보본부 |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5** |

배포일 : 2024년 2월 27일

|  |
| --- |
| **차바이오텍, 양이온성 화합물 활용 NK세포 항암효능 강화**   * **박경순 교수팀, 양이온성 화합물과 함께 배양한 NK세포의 항암효능 향상 확인** * **차바이오텍, 박경순 교수팀의 배지조성물을 연구용으로 이전 받아** * **개발 중인 NK세포 치료제에 적용해 항암효능 평가** |

차바이오텍(085660)이 양이온성 화합물인 폴리머(Polymer)를 활용해 개발 중인 NK세포(Natural Killer cell, 자연살해세포)치료제의 항암효능을 높이는 연구를 시작한다.

이번 연구에 사용하는 양이온성 화합물은 합성 폴리머로 분자량이 낮은 분자인 단위체가 반복하여 결합된 고분자의 한 종류다. 차 의과학대학교 의생명과학과 박경순 교수팀은 NK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는 화합물을 찾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, 특정 합성 폴리머와 NK세포를 함께 배양했을 때 삼중 음성 유방암 및 난소암 마우스 모델에서 NK세포의 항암효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.

연구 결과는 2022년 8월 미국면역항암학회에서 발간하는 '암 면역요법 저널'(Journal for ImmunoTherapy of Cancer, JITC)에 게재됐다.

차바이오텍은 박 교수팀의 배지조성물을 연구용으로 이전받아 NK세포의 항암효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. 개발 중인 NK세포치료제를 합성 폴리머가 포함된 배양조건으로 만든 후 혈액암과 고형암에서 NK세포의 항암효능이 높아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.

차바이오텍 이현정 대표는 “이번 연구에 활용하는 물질은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은 안전한 물질”이라며 “NK세포의 항암효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요법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차바이오텍은 NK세포치료제 병용요법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물질이전 계약을 하는 등 NK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있다. NK세포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▲NK세포 자체의 기능 강화 ▲항체 병용 요법 ▲CAR(Chimeric Antigen Receptor; 키메라 항원 수용체)를 적용한 CAR-NK세포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. (끝)